

보도시점 (온라인) 2026. 9. 9.(수) 12:00
(지 면) 2026. 9. 10.(목) 조간

“반복 행정 줄이고 재난 대응 빨라져”... 지방정부 인공지능(AI) 혁신 한자리에

- 행안부, 9월 10일 제주에서 ‘제43회 지역정보화(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지방정부 AI 우수사례 8건 본선 진출... 대통령상·국무총리상·행안부장관상 수여
- 공무원이 직접 AI를 활용해 행정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 혁신성과 공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줄이고, 재난 대응 시간을 단축하는 등, 지방정부 공무원이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한 인공지능(AI) 혁신사례가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0일(목),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43회 지역정보화(지방정부 AI)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5개 시·도가 발굴한 인공지능(AI) 활용 사례가 출품되었으며,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된 8개 우수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다. 특히, 올해 본선에는 현장 업무를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이 생성형 AI와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을 활용해 업무용 프로그램과 기능을 직접 개발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 처리시간을 줄이거나 주민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인공지능(AI)을 재난 대응에 적용해 상황전파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재난 발생 시 담당자가 일일이 판단해야 했던 재난유형 분류, 전파 대상 선정, 상황전파 문안 작성 등을 인공지능(AI)으로 자동화한 ‘세종 SIREN’을 자체 개발했다. 이를 통해 상황 접수부터 전파까지 건당 평균 10분 이상 소요되던 시간을 약 10초로 단축하고, 발생 위치와 위험정보를 지도에 시각화하여 재난 현장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시는 ‘김해AI 혁신 플랫폼’과 6종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를 자체 구축했다. 대표적으로 ▲공간정보를 자연어로 분석, ▲당직업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AI) 비서, ▲각종 계획을 관리하는 기능 등을 통해 직원들이 겪는 반복적인 업무를 개선했으며, 개발한 모델과 소스코드를 다른 지방정부에도 공개해 공동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기관 차원의 인공지능(AI) 활용 기반을 구축해 업무 전반으로 활용 범위를 넓혔다.

부산광역시는 생성형 AI 기반 행정업무 플랫폼인 ‘AI부기주무관’을 구축하고, ▲질의응답, ▲문서 초안 작성, ▲예산 업무 지원, ▲문서 공동편집 등 14종의 행정업무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행정 자료를 기반으로 답변과 출처를 제공하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 등을 적용해 생성형 인공지능(AI) 답변의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외부 상용 인공지능(AI)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생성형 AI인 ‘전북AI’를 직접 개발했다. 민감한 행정정보를 내부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면서 보고서 작성, 업무편람 질의응답 등 30여 종의 기능을 제공한다. 직원들이 바이트 코딩을 활용해 부서별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직접 기획하고 개발하면서 인공지능(AI) 활용 범위도 넓혀가고 있다.

정부는 공공행정 현장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주도할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 9월 ‘AI챔피언’ 교육과정을 본격 도입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바이트 코딩(Vibe coding)과 인공지능(AI) 코딩도구, 개방 데이터, 공공 API 등을 활용해 현장의 반복 업무와 국민 불편을 개선하는 시제품을 직접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AI 정부 실험실’을 통해 실험·개발 환경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에 힘입어, 이번 대회에 공무원의 직접 개발 사례들이 다양하게 출품된 것으로 보인다.

본선에서는 8개 지방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혁신 사례와 주요 성과를 발표한다. 외부 전문가 평가(70점)와 현장 참가자 투표(30점)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우수사례에는 대통령상(1점), 국무총리상(1점), 행정안전부 장관상(6점)을 수여한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발표대회는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AI를 활용해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자율적인 AI 실험은 과감히 지원하고, 검증된 우수 사례는 안전한 보안·관리 체계 아래 범정부적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인공지능정부실 지역디지털협력과	책임자	과 장	채영주 (044-205-2761)
		담당자	주무관	전세빈 (044-205-2763)



참고

제43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과제(8개)

연번	기관명	우수 사례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부 AI 챔피언 육성정책의 현장 성과’ 행정직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AI 도구 6종으로 공공AX확산 · (내용) AI 챔피언 기반 유기적 조직 연계 체계 구축, 실무자 중심의 상향식 AX 절차 정립, 지방행정 병목 해결을 위한 'AI 도구 6종' 자체 개발 · (기대효과) 바이트코딩을 이용한 자체개발로 15억원 절감, 전사 AI 플랫폼 이용자 25.6% 증가, AI도구 오픈소스 공개로 공공정보의 국민 접근성 획기적 향상
2	전북특별자치도	기술과 조직을 함께 혁신하다 - 오픈소스로 직접 만든 저비용·고성능·고보안 생성형 AI 및 직원 주도 AI 행정 혁신 연구회 · (내용) 전북대 AI 전공 학생과 협업해 0원 SW 비용·3억 원 GPU 서버만으로 자체 오픈소스 생성형 AI “전북 AI”를 구축·운영하고, AMD MI300X 8장 기반 427B급 초대형 모델을 폐쇄망에서 구동해 보안성을 강화 · (기대효과) 자체 AI 기반 “도 금고 자금운용 최적화”와 보고서 자동화로 외주비를 절감하고, 문서작성 시간을 단축해 업무 생산성을 높임
3	부산광역시	부산형 AI서비스(AI부기주무관) 구축 및 고도화 · (내용) 생성형 AI ‘AI부기주무관’ 플랫폼을 구축해 RAG 기반 행정지식·멀티 템플릿 초안생성·AI 이미지·OCR·공동편집 등 14가지 서비스·AI 데이터·모델·인프라를 연계한 일원화된 행정 AI 체계를 마련 · (기대효과) 문서·보고서 작성 시간 단축·결과물 품질·전문 업무 생산성 향상·출처 제시 RAG로 정책 판단 정확·책임성 강화·부산·전국·해외 확대가능한 공공 AI 표준 모델을 구현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후 단속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전국 최초 부동산 거래 안전의 새로운 표준「수성구형 예방행정 공공서비스 3종」 구축 · (내용) 담당공무원이 바이트코딩으로 AI 기반 3가지 웹서비스(비선호시설 자동 스크리닝·광고 사전 검증·아파트 실거래가 리포트)를 예산 0원으로 직접 기획·구현하고, 공공데이터 연계·자동 갱신·개인정보 비저장·보안·윤리·신뢰성 절차를 반영함 · (기대효과) 계약·광고 단계에서 비정상·오류를 사전 차단해 과태료·분쟁을 줄이고, 실거래 데이터 시각화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부동산 거래 안전성과 주민 체감 효과를 크게 높임

연번	기관명	우수 사례
5	인천광역시	AI기반 다중이용시설 피난안내시스템 · (내용) 지하철 역사 내 화재 발생 시 AI가 상황을 실시간 분석하여 최적의 피난 경로를 안내하는 'AI기반 다중이용시설 피난안내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기존 구역별 화재감지에서 화재감지구역을 세분화하여 역무실의 초동대처를 지원하고 최적피난경로 제공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재난·안전 골든타임을 앞당기다 · (내용) 재난/사건 상황인지→전파까지 초단위 전파 및 시각적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AI 플랫폼 「세종 SIREN」을 비예산으로 구축하여, 하나의 플랫폼으로 운영 · (기대효과) 자동화로 업무를 단축·예산 절감, 선제 경보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피해 예방, 51종 위기매뉴얼을 AI 대응체계로 전환·중앙·지방 재난 조직에 전국 확대가 가능한 안전·효율 혁신을 구현
7	충청북도 (청주시)	AI와 공무원의 현장지식이 만든 비예산 재난안전 플랫폼 「상당맵」 · (내용) 현장공무원이 비예산으로 재난안전 통합지도 플랫폼 '상당맵'을 직접 설계·구현·운영하고, 실시간 위험·신고·관리·통제 정보를 한 화면에서 제공하도록 구축 · (기대효과) 주민은 위험·통제 정보를 즉시 확인하고 QR 신고·처리 이력을 실시간 열람할 수 있어 안전감이 높아지고, 자동화된 업무 흐름으로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예산이 절감돼 행정 신뢰와 현장 대응 속도가 크게 향상
8	경상남도 (김해시)	현장이 만드는 AI 서비스, 「김해 AI 혁신 플랫폼」 -공무원 전방배치 개발(FDE) 모델로 구현한 비예산 자체개발 AI 행정 · (내용) 현장 공무원이 직접 코딩한 FDE 모델 기반 '김해AI' 플랫폼과 6가지 AI 에이전트를 비예산으로 자체 개발·배포하고, 인공지능 매뉴얼 및 임베딩 모델을 공개·타 지자체에 전파해 행정 AI 서비스를 확산 · (기대효과) 자체 개발로 약 10 억 원을 절감하고, 정부 정책에 3일 만에 AI 서비스·안전비서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공개된 임베딩·소스 코드가 타 지자체에 확산돼 전반적인 디지털 행정 혁신을 촉진